

2026. 10. 7
수요일(주간)
제 872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 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리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2930@nate.com
(우)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임금계좌
통 령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3 기획특집-2027목회트렌드세미나 15일 오후 2시 광주동명교회



10월 15일(목) 광주동명교회에서 갖는 '2027년 목회트렌드 세미나'는 '강소형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라는 두 주제에서 출발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변화할 현실을 어떻게 읽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본다.

5 기획특집-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이수정 선생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국에 소개'해 입금과 해방을 섬기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쁜 습관에서 자라났기에 저'는 이러한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10월 10일(토) 10월 11일(일) 10월 12일(월) 10월 13일(화) 10월 14일(수) 10월 15일(목) 10월 16일(금) 10월 17일(토) 10월 18일(일) 10월 19일(월) 10월 20일(화) 10월 21일(수)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10월 24일(토) 10월 25일(일)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10월 31일(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음화대성회 11일 오후 7시 광주저자씨교회

“섬김, 상생, 아름다운 동행” 주제
대구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강사 초청

20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음화대성회가 오는 10월 11(주일) 오후 7시 광주저자씨교회(박종은 목사 시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2로 19/봉선동 300)에서 열린다.

광주특별시 기독교단협의회(대표회장 나종갑·이하 광교협)가 주최하고 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인 목사)가 주관해 열리는 이날 2026 광주복음화대성회는 대구대명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섬김, 상생, 아름다운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날

광주복음화대성회 1부 찬양과 경배는 박철수 목사와 광교협 찬양단의 찬양, 광신대학교 해원양상들의 오픈 세레머니로 예배의 문을 연다.

2부 예배는 광교협수석부회장 한상인 목사(광주복음교회)의 인도로 대표회장 나종갑 목사의 대회사, 상임부회장 양희정 장로의 기도, 회록서기 김광인 목사(월성교회)의 성경봉독(여호수아 2:8~12) 후, 연합찬양대의 ‘발레투아’ 찬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강사 장창수 목사가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제하의 말

씀을 선포한다.

회계 김재원 장로의 봉헌기도에 이어 광주장로찬양단이 ‘되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곡으로 봉헌송을 드린다.

광주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특별찬양 순서에 이어 ▲광주특별시 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해(광산교회회장 조광수 목사) ▲광주특별시복음화와 교회를 위해(서교회회장 김장수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남교회회장 여상수 목사) 특별기도를 드린다.

예배 후 사무총장 이종필 목사(신창새교회)의 광고와 상임고문 리종기 목사(빛과사랑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집회순서를 마친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와 호남신학대학교 영커사업단이 지난 9월 11일 호남신학대학교 본관 301호에서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파하라”

한국순례길 광주지부,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개강
12주간 이론·현장답사·해설 실습... 2개 자격증 수여

광주·전남지역에 산재한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선교사들의 신앙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할 전문 해설사 양성 과정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지부장 김종원)와 호남신학대학교 영커사업단(단장 박일연)은 지난 9월 11일 호남신학대학교 본관 301호에서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과정' 개강

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파하라'를 표어로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기독교 선교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이론교육뿐 아니라 현장답사, 해설 시나리오 작성, 실습 및 발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강예배는 김현용 목사(한국

순례길 광주지부 영성국장)의 인도로 송순환 목사(한국순례길 선교국장)의 기도, 제1·2기 해설사들의 특송, 황인호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호 총장은 '어떤 길로 갈까요?'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양립동의 유전 벨과 서서평, 포사이트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고단한 길을 가기에 순종하며 걸었고, 그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9주년 기념식 및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고려인 90년의 기억, 광주에서 세계로 잇는다

강제이주 89주년 기념식... 2027년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 출범
국제포럼·영화제·역사탐방 추진... 타슈켄트 역사박물관 건립도 본격화

고려인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2027년 90주년 국제기념사업을 준비할 추진위원회가 광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3면>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9주년 기념행사 및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나도문화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 동포와 지역 시민, 문화예술인, 학계·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는 임재완·홍인화 공동대표와 이바랭·오경복 공동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2027년 국제기념사업을 준비한다. 1937년 강제이주의 기억을 기록·계승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공유하는 인권·평화·문화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

다.

출범식에서는 고려인 자녀들과 사업 준비위원들이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뒤 "고려사람, 대한으로!"라는 구호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현장 측사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90주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국비로 건립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박물관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중앙아시아 정착, 민족문화 보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고려인의 역사·문화를 중앙아시아와 세계 디아스포라로 연결하는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7년 국제기념사업으로는 국제포럼과 디아스포라 문화예술 공연, 국제영화제, 러시아·CS 지역 고려인 예술단 초청 공연, K-팝 경연대회, AI·XR·VR 기반 디아스포라 랩, 강제이주 경로 역사탐방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추진된다. 국제포럼은 조선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국제영화제 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 계획이다.

추진위는 광주가 고려인 공동체와 함께 해 온 90여 년의 교류 경험을 토대로 '90년의 동행, 90년의 기억, 세계와 함께 여는 미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다.

이어 "이번 해설사 과정은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다"며 "선교사들이 걸어온 순종과 생명의 역사를 오늘날의 언어로 전하는 거룩한 사명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예배 후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김종원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장과 박일연 호남신학대학교

영커사업단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교육과정과 임원진을 소개했다.

김종원 지부장은 "2024년 창립한 광주지부가 3년 차를 맞아 호남신학대학교와 함께 뜻깊은 교육과정을 열게 됐다"며 "130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널리 전함으로써 광주와 호남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

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선교사들이 남긴 유산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살아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며 "수강생들이 기독교 역사와 선교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가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예식

일시 : 2026년 10월 18일(주일) 오전11시 (3부예배)
장소 : 광주벧엘교회 대예배실

임직자 명단

- 장로 임직: 김원길 이달주 정강희 정영인
- 안수집사취임: 이희식
- 안수집사임직: 김성주 고광훈 박재홍 김진곤 박철주 한정상
- 권사취임: 김현희
- 권사임직: 정정자B 유은순 강정은 박연심 이행심 최경자 김윤정A 이희영 김명숙B 김미례B 신명월 김미혜 윤경이 이정애 장학선 김은영F 정인선 김세희A 황수정 나세민 윤미경 조진화 김유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벧엘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본로 170번길 8(월산동) 교회: 062)367-1004 팩스: 062)361-1004
홈페이지: www.kjbethel.kr E-mail: kjbethel979@hanmail.net